# C++ Asynchronous Programming

Lyn Heo / C++ Korea FaceBook Group



# 오늘 내용

-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
-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장단점
-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구현 방식
- 각각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
- 앞으로는?

#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란?

• 함수를 호출 하는 시점과 결과를 받아 오는 시점이 다른것

• 주로 파일 / 네트워크등의 IO나 대량의 연산을 할때 사용

1 CPU cycle  $0.3 \, \text{ns}$ 1 s Level 1 cache access 0.9 ns 3 s Level 2 cache access 2.8 ns 9 s Level 3 cache access 12.9 ns 43 s 6 min Main memory access 120 ns Solid-state disk I/O 2-6 days 50-150 µs Rotational disk I/O 1-10 ms 1-12 months Internet: SF to NYC 40 ms 4 years Internet: SF to UK 81 ms 8 years Internet: SF to Australia 183 ms 19 years

출처 : 코딩호러



#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장점

• 함수를 호출 해 두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

- 특정 Thread의 과부하를 방지 할 수 있다
  - 결국 같은 얘기

• 세밀한 Multi Thread Programming 없이도 추가 코어를 활용 가능하다

● 성능을-올릴-수-있다

#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단점

- 성능이 나빠진다
  -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
- CPU / Memory 소모량이 늘어난다
- 코드를 만들기 힘들고
- 디버깅하기 힘들다

# 그래도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이유

- 유저가 느끼는 퀄리티가 좋아진다
  - 사실 이게 모든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
-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강제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
-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강제되는 플랫폼이 있다
  - Android, UWP, Etc...

#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필수 요소

• 호출한 작업을 대신 해 줄 Thread의 존재

• 호출한 작업의 결과를 받아올 방법의 존재

● 위 두가지를 위한 오버헤드 발생 → CPU를 더 많이 먹는다

 결과를 처리할 시점까지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 → 메모리도 더먹는다

# 그런데 왜 성능이 더 좋다고?

- Client의 경우
  - 대부분의 Platform 은 UI Thread 외에서의 UI 접근이 안전하지 않음(Windows, Android, etc.....). UI Thread는 항상 바쁨
  - UI Thread의 부하를 다른 Thread로 넘길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느끼기에 빨라 보임
- Server의 경우
  - 많은 IO 를 처리 하기 위해 루프에서 매번 체크하던가(non blocking),
     아니면 IO 마다 Thread를 생성해서 기다려야 함
  - 루프 or Thread Switching 의 부하가 비동기를 구현하기 위한 부하보다 큼

#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활용 목적

• UI 반응성을 올리기 위해

- Multi Thread 를 지원 하지 않는 언어에서 최대한 성능을 내기 위해
  - Javacript 기반의 Node.js가 대표적
- ●유행하니까

<del>- 그냥-멋있어보여서</del>

# Thread가 없는 언어는?

- 언어 스스로 별도의 코드 흐름을 만들 수 없다
  - 해결책 : 비동기 호출 부분을 별도의 언어로 구현해버린다
- node.js의 경우 libuv를 내장하여 비동기를 구현



###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방식

- (Windows의 경우) QueueUserAPC 를 호출 하여 대기중인 Thread에 작업을
- OS에서 제공하는 비동기 IO 방법 이용(사용 용도가 한정적)
- Thread Pool을 직접 구현하여 작업을 실행
- Task 기반 프로그래밍
  - 라이브러리 기반(PPL, TBB)
  - 언어확장 기반 (Cilk+)
- async await 를 이용한 프로그래밍(C++ 17 예정)

# 비동기 호출의 결과를 받아오는 방법

- Thread 내 / 외부에 공유하는 Queue에 넣고 나중에 체크한다
  - Windows의 IOCP가 이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.
- Message, Signal, Event 등의 알림을 받아 처리한다
  - 요즘은 잘 안쓰는 방법

- Callback 함수를 사용한다
  - 요즘 일반적인 방법. Node.js 가 이 방법을 사용

# Thread를 직접 다루는것은 바보짓?

 앞으로는 코어가 무한이 늘어날 것이므로 저레벨에서 Thread를 직접 프로그래밍은 바보짓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

#### 병렬화의 이유

- 새로운 반도체 소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클럭 속도를 높이기 힘들다
  - 무어의 법칙의 한계 -
- Multi-core에서 Many-core 시대로 바뀌고 있다. (3~4년 내에 데스크탑 코어는 60개 까지 늘어날 것이다)
- 빠른 처리속도, 빠른 처리속도, 빠른 처리 속도를 얻기 위해서

- 현실에서는 코어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
  - 2007년 Q6600 4코어 → 2017년 i7-7700K 4코어
  - 클라우드의 VM은 2~4코어를 빌리는경우가 대부분 많음
  - 스마트폰의 모바일 CPU 도 4코어가 한계

 물론 코어가 많이 늘어난 하드웨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수평확장이 일반화 된 지금은 흔히 볼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

#### 출처 : Intel 공식 사이트

#### Essentials

Export specifications

Product Collection	Intel® Xeon® Processor E7 v4 Family
Processor Number	E7-8894V4
Launch Date ?	Q1'17
Recommended Customer Price	\$8898.00

Code Name	Products formerly Broadwell
Status	Launched
Lithography ?	14 nm

#### Performance

# of Cores ?	24	# of Threads ?	48
Processor Base Frequency ?	2.40 GHz	Max Turbo Frequency ?	3,40 GHz
Cache ?	60 MB	Bus Speed ?	9.6 GT/s QPI
# of QPI Links ?	3	TDP ?	165 W

오히려 Task를 위한 잡다한 코드가 없는 비교적 심플한 형태의 코드가 사후디버깅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

# C++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

•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.

 유행하는 방법, 코딩이 편한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. 하지만 모든 방법에는 그에 해당하는 단점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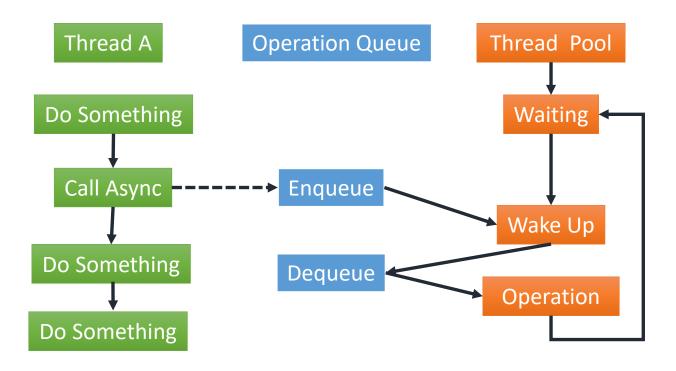
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언어를 사용 하는 사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.

# Thread Pool을 이용한 구현

• 작업용 Thread를 미리 여러개(혹은 동적으로) 와 Thread 들에게 작업을 전달 하기 위한 Queue를 준비 한 후, 작업을 Queue에 넘기고 Thread들이 놀고있을때마다 꺼내가면서 처리

• 가장 일반적인 구현

• Node.js 가 사용하는 libuv 의 형태가 이런 식



#### QueueUserAPC

- 특정 Thread에 함수를 호출 하라고 요청
- 해당 Thread 는 Alertable 상태이어야 함
  - 이를 위해 해당 Thread를 Alterable 상태로 만들기 위한 특수 함수 존재
  - 현재 Thread에도 가능함(위험하지만)
- 특정 Thread 를 지정하여 작업을 대행시키는 방법이라 별도의 Thread 관리가 필요
- APC 호출 시 해당 Thread의 Stack을 공유하므로 재귀적으로 현재 Thread에 요청시 (당연하게도) Stack Overflow 의 위험이 있음
- (당연하게도) UI Thread에 오래 걸리는 작업을 요청 할 경우 블록됨

#### QueueUserAPC

```
void NTAPI asynccall(ULONG_PTR ptr)
{
    printf("Hello C++");
}
int main()
{
    QueueUserAPC(asynccall, GetCurrentThread(), 0);
    SleepEx(1000, TRUE);
    return 0;
}
```

# Task 기반 비동기 프로그래밍

• 하나의 함수를 Task 라는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

- 리턴값까지 처리 해 주는 형태의 구현도 있음
  -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음.
- 언어확장 / 라이브러리의 형태의 구현이 많음
- 병렬처리 기능과 병행되는 형태가 많음

# Cilk+ 를 이용한 비동기 프로그래밍

- cilk\_spawn 키워드로 함수를 호출
- cilk\_sync 로 대기
- 전용 컴파일러가 필요 하다는 것이 단점

```
printf("Hello C++");
}

int main()
{
    for (int i = 0; i < 4; ++i)
        {
             cilk_spawn asynccall();
        }
        cilk_sync;
}</pre>
```

# TBB를 이용한 비동기 프로그래밍

• Cilk+ 를 만든 Intel 의 라이브러리여서 그런지 사용 방법이 비슷

• 비동기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group 이 해제될 경우 문제 발생 – group 객체가 안전한곳에 보관되어야 함

• Library 형태라 멀티플랫폼 지원

```
int main()
{
    tbb::task_scheduler_init inits;
    tbb::task_group group;
    group.run([] { printf("Hello C++\n"); });
    group.run([] { printf("Hello Intel\n"); });
    group.run([] { printf("Hello Linux\n"); });
    group.wait();
}
```

# C++ Standard Library를 이용한 비동기 프로그래밍

• C++ 표준에 구현된 방식

• C++11에 구현되었지만 C++14 에서 완성되었다고 보는 편이 좋음

• Thread / Future / Promise 의 합성으로 구현

• 표준이라는 것 외엔 그다지 ..... 17에선 개선이 있다고는 하는데

# 가장 기본적인 형태

- 객체가 3개나 필요하고 thread를 직접 생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
- std::packaged\_task<T>를 사용 할수도 있지만... 언급할 가치 없음

```
int main()
{
    using namespace std;

    promise<string> prom;
    future<string> fut = prom.get_future();
    thread thr([&prom](const char* say, const char* language)
    {
        printf("%s %s\n", say, language);
        prom.set_value(string("Seoul"));
    }, "Hello", "World");

    printf("%s", fut.get().c_str());
    thr.join();
}
```

#### std::async

• Thread를 직접 생성하고/ 통로 만들고 하는 과정 생략

```
int main()
{
    using namespace std;

    future<string> myfuture = std::async(std::launch::async,
        [](const char* say, const char* language)
        {
            printf("%s %s\n", say, language);
            return string("Seoul");
        }, "Hello", "World");

        printf("%s", myfuture.get().c_str());
}
```

# C++ Standary Library 의 async 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요

● 당연히 컴파일러마다 구현은 다르지만... 제가 자주 쓰는 Visual C++ 를 한번 보겠습니다.future 헤더를 보면

```
// future standard header
    #pragma once

□#ifndef _FUTURE_

     #define _FUTURE_
   #error <future> is not supported when compiling with /clr or /clr:pure.
      #endif /* _M_CEE */
10
11
   #ifdef _RESUMABLE_FUNCTIONS_SUPPORTED
      #include <experimental/resumable>
12
13
      #endif /* _RESUMABLE_FUNCTIONS_SUPPORTED */
14
15
    ⊨#include <functional>
16
     #include <system_error>
17
     #include <utility>
     #include <chrono>
18
     #include <mutex>
19
     #include <condition_variable>
20
21
      #include <ppltasks.h>
22
23
     #include <thread>
24
```

```
template<class _Rx, bool _Inline>
   class _Task_async_state
    : public _Packaged_state<_Rx()>
    { // class for managing associated synchronous state for asynchronous
      // execution from async
public:
    typedef _Packaged_state<_Rx()> _Mybase;
    typedef typename _Mybase::_State_type _State_type;
    template<class _Fty2>
       _Task_async_state(_Fty2&& _Fnarg)
            : _Mybase(_STD forward<_Fty2>(_Fnarg))
           // construct from rvalue function object
        _Task = ::Concurrency::create_task([this]()
            { // do it now
            this->_Call_immediate();
            });
       this->_Running = true;
```

# PPL을 이용한 비동기 프로그래밍

- Microsoft 의 구현(TV에-나오는-제품간접광고-아닙니다)
- C# 의 Task<T> 와 비슷한 형태
- Task 체인과 리턴값의 처리를 지원
- UWP에 자주 사용(참고자료 : http://www.slideshare.net/dgtman/f1-c-windows-10-uwp) int main()

```
using namespace concurrency;
auto helloTask = create_task([] { printf("Hello C++\n"); })
    .then([] { printf("Hello Microsoft\n"); })
    .then([] {
    printf("Hello Windows\n"); return "Lyn!";
});
printf("%s", helloTask.get());
```

# 그럼 다른 구현은?

• Ilvm 의 libstd++ 의 구현입니다.

# 지금까지 나온 방법의 공통점

• GC를 지원하지 않는 특성상 Task 작동 중에 Task 관련 객체가 사라질 수 있음

• 따라서 반드시 Task 의 종료시까지 Task 객체를 살려두어야 함

• 비동기 호출의 효율이 떨어지고 사용 가능한 상황이 한정됨

• 그럼 Callback 을 이용하는 방식은 어떨까요?

# 그럼 Callback 을 사용하는 방식은?

# C++ 에는 추가적인 이슈도 있습니다

• Task 내에서 Callback 을 할 경우 작업을 요청 한 Thread 와 Callback 이 발생 하는 Thread가 다르기 때문

- 만약 Task의 완료 후 UI의 갱신이 필요하다면? 별도의 Thread 간 통신을 이용하면 UI Thread 로의 Switching 이 필요함
  - 사실 Node.js 도 마찬가지. Callback 을 javascript thread 에서 발생 시켜줘야 하는 이슈가 있음
- 이쯤 되면 대체 뭐가 편한지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

# 더 좋은 방법은 없나요?

# C#2 async - await

•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한 비동기 호출 구현

• C# 5.0에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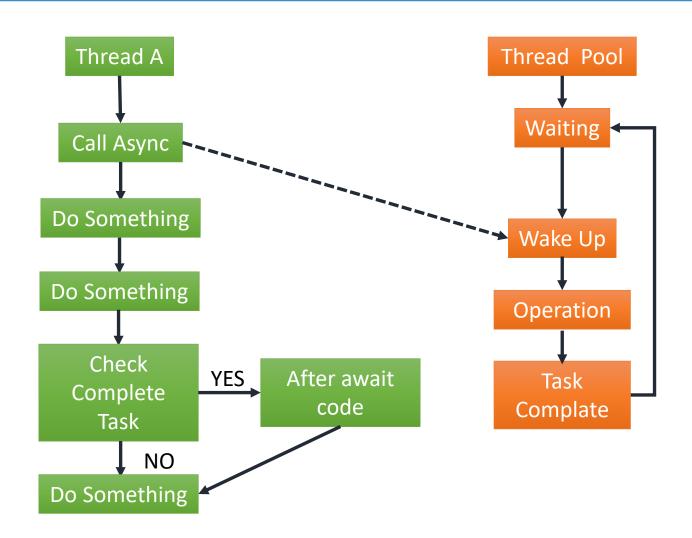
• 단 2가지 키워드 (async – await) 로 비동기 호출 구현

• Callback 방식이면서 마치 리턴을 받는 형태처럼 사용

# C# 예제 코드

```
namespace ConsoleApplication11
    0 references
    class Program
        private static async Task<string> asynccall()
            Console.WriteLine("Hello C#");
            return "Result";
        private static async void foo()
            string r = await asynccall();
            Console.Write(r);
        0 references
       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
            foo();
```

```
namespace ConsoleApplication11
    0 references
    class Program
        1 reference
        private static async Task<string> asynccall()
            Console.WriteLine("Hello C#");
            return "Result";
        1 reference
        private static async void foo()
            string r = await asynccall();
            Console.Write(r);
       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
            foo();
```



# C++ 에도 생깁니다 그런데...

- await / resumable 이라는 키워드의 추가로 지원 예정
- C++ 17 추가 예정(http://www.open-std.org/jtc1/sc22/wg21/docs/papers/2013/n3722.pdf)
- 아직 어떤 식으로 구현 될지는 모릅니다... C++17에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도 모릅니다.<del>사실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</del>
- 테스트 해 볼 쓸만한 컴파일러도 없습니다
  - Visual C++도 버전따라 되다 안되다 합니다. 되는 경우도 64bit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
  - C++/CX 에서는 지원 되지만 다른 형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

# 감사합니다